



# 산수국



최 명 섭  
임업연구원

도심 공원이나 빌딩의 녹지대, 도로분리대등의 생울타리로 향나무, 측백나무, 쥐똥나무 등을 많이 심는다.

또 요즘들어 매자나무를 심기도 하나 이들 생울타리용 관목(灌木)들은 대부분 꽃이없는 낙엽활엽수이거나 꽃이 있다

해도 볼품이 별로 없어 아쉬운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같은 값이면 산수국, 철쭉등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관목을 심는다면 생울타리 역할도 할뿐 아니라 철따라 피는 꽃도 감상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1. 생태적 특성

중부이남의 표고 200~1,400m 사이의 계곡이나 전석지에 자

생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1m정도 자라고 밑에서 많은 줄기를 내어 번성하며 중성식물로 건조한 바위틈이나 습한 계곡에서도 잘살며 내음성이 강하여 큰나무 아래에서도 개화결실이 양호하다. 척박한 입지보다 부식질이 많은 토양을 좋아하며 내한성, 내공해성이 강해 도시근교에서도 잘 생육한다. 특히 물을 좋아해 물이 있는 곳에서는 생장이 왕성하고 잎이 싱싱하게 팽창하나 물

과명:범의귀과  
학명:Hydrangea  
serrata for.  
acuminata  
한명:山水菊  
일명:야마아じざい



■산수국의 전경



■ 산수국



■ 개량된 산수국

이 없는 곳에서는 힘이 없이 축 처진다.

## 2 형태적 특성

새로 자란 어린가지는 연녹색이고 오래된 줄기는 갈색으로 흑색점이 있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 5~15cm, 넓이 2~10cm로 타원형 또는 계란형이고 긴 점첨두로 아래부분은 둥글거나 뾰족하다.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고 양면 맥위에 털이 있다. 6~7월에 피는 꽃은 새로 자란 가지 끝에 산방화서로 피며 털이 있고 그 둘레에 있는 무성화는 지름 2~3cm이며 꽃받침은 3~5개로 백홍벽색(白紅碧色) 또는 벽색이고, 안쪽에 있는 양성화(兩性花)는 진보라색이다. 열매는 삭과로서 도란형이며 가을에 익는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산수국을 「탐라산수국」이라하고 덩굴로 자라는 수국을 「등수국」 또는 「바위수

국」이라부른다.

학명 *Hydrangea*는 Hydro(물)과 Angeion(용기)의 합성어로 수국의 열매가 물을 담은 용기와 같이 생겼다는데서 유래되었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어디서나 심을 수 있으며 특히 바다 바람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꽃을 잘 피운다. 나무그늘 아래서도 생육이 가능하며 햇빛이 잘드는 노출된 장소에서도 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가정의 정원이나 공원의 큰나무 밑에서도 꽃을 볼수 있어 식재 장소가 넓다. 원예종으로 개량하여 심고있는 수국은 꽃전체가 종자를 얻을 수 없는 무성화로 이루어져 꽃은 아름답지만 인조화같은 느낌을 주나 산수국은 수국의 원시형이라 할 수있으며 양성화, 무성화 둘다

검비한 완전화의 자연스런 아름다움이 있다.

## 4. 번식법

번식은 여름철 녹지삽목을 통해 증식할 수 있으며,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가을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이끼위에 직파하면 많은 묘목을 얻을 수 있다.

## 5. 그 밖의 용도

잎을 건조시켜 여러겹으로 짜서 보관하면 열이 나는데 이를 비벼 햇빛에 건조시켜 두고 차 대용으로 끓여 마시기도 한다. 잎에는 단맛이 강하나 칼로리가 적어 당뇨병환자의 감미료로 쓰이며 간장이나 과자, 담배의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한다.